

“농촌 살길은 공동체 농업뿐”

화요일에 만난 사람

김진홍 농업공동체 '두레마을' 목사

70년대 서울 청계천 철거민촌의 '활빈교회'로 유명한 김진홍(53)목사, 지난 76년 청계천 철거민들을 이끌고 경기도 화성군 남양만에 내려와 간척지를 일구고 '두레마을'이란 농업공동체 마을을 건설해온 지 꼭 18년 만에 김 목사는 사실상 은둔생활을 청산하고 올해부터 우리 농민과 농촌에 다가가려 하고 있다.

“두레마을을 만들어 공동체생활을 바탕으로 생산·가공·유통 등 각 부문을 직접 경영함으로써 지난해 비로소 흑자를 내는 등 경쟁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농업의 가능성을 확신하게 됨에 따라 농산물 수입개방의 파고를 이겨내고 우리 농촌이 살 길은 바로 공동체 농업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철저한 유기농법

그를 포함해 1백9명의 두레마을 식구들은 이곳 5만여평의 마을에서 논밭농사는 물론 축산, 빵과 국수공장 등 생산과 가공부문에 참여하거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직영매장을 중심으로 유통활동에 종사하는 등 능력에 따라 무슨 일이든지 하고 있다.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쓰지 않는 철저한 유기농법으로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판로개척에 성공한 두레마을은 자체 생산한 농산물로는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해 근처 우정면·장안면 일대 농민과 청계천 이주민들로부터 농산물을 사들여 공급함으로써 지역 소득증대에도 한몫을 토크하고 있다. 올해 안에 두레마을에 햄공장을 세워 미국·일본 등지에 수출하기로 하는 등 자신감을 얻은 그에게 농산물 수입개방은 결코 두려움의 대상일 수만은 없다.

정부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에 대해 김 목사는 “수출이 국가경제를 주도해온 우리 여건에서 농산물 수입개방을 계속 거부하기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라고 받아들이면서도 “협상타결 뒤 정부가 내놓은 대응책에 농민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지 않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앞으로 42조원을 들여 농업구조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생산부문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하고 “대기업과 특정

이권단체가 독점하고 있는 가공과 유통부문을 농민에게 돌려주지 않는 한 정부 정책은 ‘밀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두레마을의 공동체 농업을 통해 그가 터득한 수입개방 대책은 우리 농촌을 50~1백농가 단위로 묶어 마을주민이 생산·가공·유통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마을과 마을을 연계해 서로 보완케 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과 유통 부문에 농민이 직접 참여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수입개방에 대처할 수 없다는 게 김 목사의 주장이다.

“독일에는 마을마다 독자적인 상표를 가진 농축산물 가공공장이 들어서 있는데 햄공장만 2만여개에 이를 정도로 농민들이 철저히 가공과 유통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업들은 더이상 농산물 가공과 유통에 참여해서는 안되며, 정부와 기업이 이를 농민의 몫으로 돌려줄 때 국민 모두가 잘살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이런 방향으로 농업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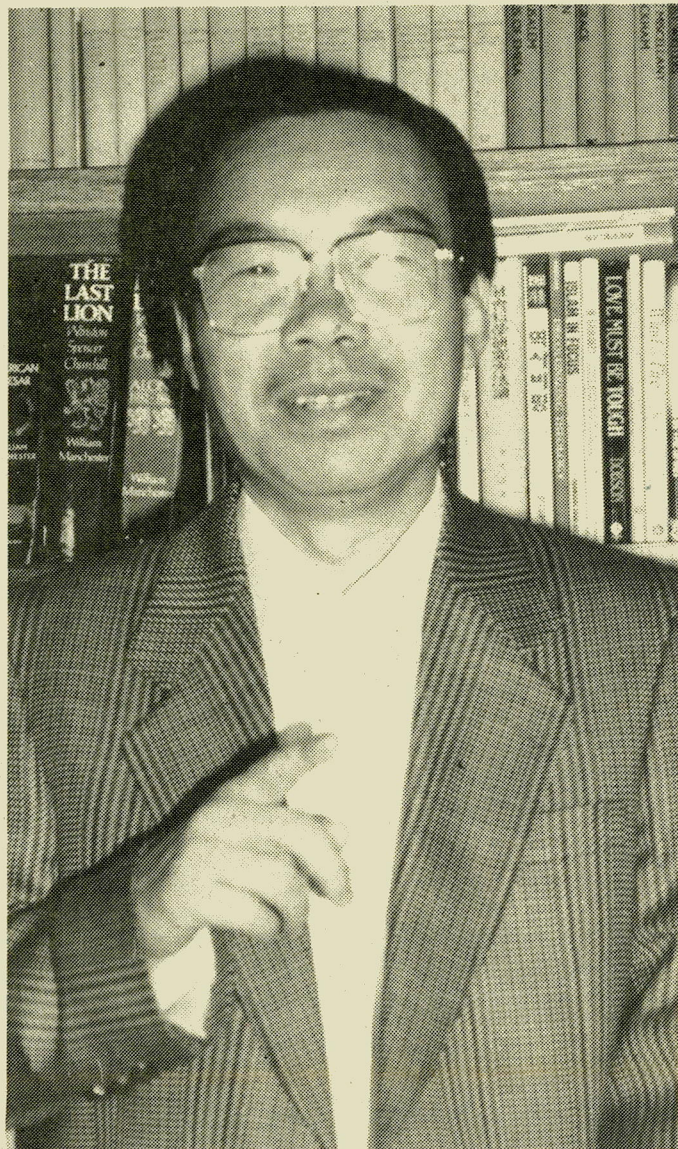
개방돼도 공동생산하면 경쟁력 충분 기업들 농산물 가공·유통서 손떼야

개선을 추진하면 현재의 농업규모를 조정하거나 전업농가를 육성할 필요가 없어 ‘단 한명의’ 농민도 농촌을 떠나지 않아도 될 것으로 그는 믿고 있다.

김 목사가 공동체 농업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는 또다른 이유는 남북통일에 대비하고자 하는 데 있다.

“두레마을에서는 식구 모두가 주인이라는 자본주의 개념이 살아 있으면서 공동생산·공동분배라는 사회주의 경제원리를 접목시키고 있기 때문에 북한 동포들에게 자본주의 사회를 이해시키는 데 가장 좋은 본보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레마을을 남북한 도마다 1~2곳씩을 만들어 운영하면 통일 뒤 체제와 경제구조의 차이에서 오는 혼란과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노동을 복음전과 활동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가 두레마을에서 맡고 있는 일은 가축 먹이주기, 가축분뇨 치우기, 달걀 거두기, 풀베기 등 단순작업이지만 다른 식구들과 마찬가지로 하루 8시간 땀흘려 일해야 한다.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노동한다는 그가 원을 넘긴 나이에도 감기 한번 걸리지 않을 정도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노동은 즐거운 것”

지난 74년 박정희 정권의 유신 체제에 항거해 시국기도회를 준비하다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고 13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기도 했던 김 목사는 착하고 부지런한 우리 국민이 그동안 고난과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올바른 정치 지도자를 만나지 못한 데서 찾는다. 그 때문에 바쁜 생활 속에서도 그는 틈틈이 신문과 잡

지, 각종 서적 등을 읽거나 사색을 통해 정치에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그는 “김영삼 대통령이 그런 대로 정치성이 돋보이기도 하고 정치적인 순발력이 뛰어나 무난해 보인다”고 평가하면서도 “개혁을 얼버무리고 ‘보수’로 회귀하면서 쉽게 안주하려는 모습이 역력하다”면서 “희생과 혼란이 뒤따르는 한이 있어도 개혁을 성공시켜야만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진정한 국가 발전의 기틀을 다지게 될 것”이라고 거침없이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지도자는 그때그때 위기를 관리하는 순발력보다 다가오는 미래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국가와 민족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는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김 목사는 또 정치 지도자 못지 않게 교회 지도자의 구실도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무속화·물량화·우민화·귀족화 등 4가지 병폐 때문에 양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신도들을 영적·도덕적으로 훈련시켜 양식 있는 민주시민으로 만드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한다. 이 때문에 그는 한국 교회가 이런 내부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할 경우 자칫 민족사의 흐름에서 도태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교회 지도자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삶의 방식을 뿌리내리고 ‘민초’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데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청와대 안에 찬송가를 올리려 할 게 아니라 국민들의 가슴에 찬송가를 울릴 수 있도록 그들의 혼을 뜨겁게 달구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그는 한국 교회의 개혁과 참된 기독교 정립을 추구하며 결집력을 보이고 있는 30대의 젊은 전도사들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두레마을도 개방

목사인지 농부인지, 아니면 사회복지가인지 통일운동가인지, 그것도 아니면 종교비평가인지 쉽게 구분이 안될 정도로 다양한 삶을 살고 있는 김 목사에게 94년 한해는 새로운 출발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그동안 내실을 다지기 위해 외부와는 거의 담을 쌓고 지냈던 두레마을의 문을 활짝 열어 보이는 것이다. 10년 전부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대비해온 공동체 농업의 현장을 농민 교육장으로 개방함으로써 농촌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 98년까지로 예정된 두레마을 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또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어야 하고 노동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남북통일 시대를 이룰 21세기의 지도자를 기른다는 원대한 포부 아래 3년째 국내의 대학원생 42명의 학비를 지원하고 있는 두레장학사업의 지원대상과 폭을 넓혀 더 많은 미래의 지도자를 키우는 일도 시급하다.

“요즘처럼 나라가 어수선할 때는 재야로부터 신선한 목소리가 나와야 하는데 침묵하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시대와 역사변화에 맞게 스스로를 보완하고 재편성해 하루 빨리 국민 곁에 다가가야 합니다. 재야의 폭발적인 힘은 흐트러져 있을 뿐이지 항상 현존하고 있다는 데서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유신 시절 한때 ‘운동권 목사’로 불리기도 했던 그는 비록 두레마을 때문에 ‘운동권’을 떠났지만 그 시절의 정열과 애정이 식지 않은 듯 “정치상황과 시대를 초월해 항상 살아 움직이는 재야 인사로 기억되고 싶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배경록 기자